



울산문화예술회관과 함께하는

Arts Friend

with Ulsan Culture & Arts Center



7.8

2012 <http://www.ucac.or.kr>



15

울산광역시 승격

주년

태화강대공원
특별 야외공연

장소 | 태화강대공원 야외공연장

주최 | 울산광역시

주관 | 울산시립예술단



울산시립교향악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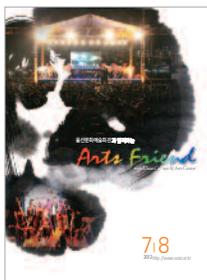
태화강대공원 **야외음악회**

7.5(목) 오후 8시

울산시립예술단

창작뮤지컬 **태화강**

7.13(금) 14(토) 오후 8시



COVER STORY |

울산광역시 승격 15주년 기념 야외특별 공연

울산문화예술회관은 울산광역시 승격 15주년을 기념하여 시민들의 휴식처로 변모한 태화강대공원에서 시립교향악단의 '태화강대공원 야외음악회(7. 5)'와 2012 창작뮤지컬 '태화강(7. 13 ~ 7. 14)'을 공연한다.

Contents

The Monthly Magazine of Ulsan Culture & Art Center

- 04 ■ **광역시 승격 15주년 기념 공연**
교향악단 「태화강대공원 야외음악회」
2012 창작뮤지컬 「태화강」
- 08 ■ **시립예술단 공연**
교향악단 제158회 정기연주회 「스트라빈스키 - 불새」
합창단 제77회 정기연주회 Happy Concert 「한 여름밤의 아름다운 노래들」
교향악단 발레음악 「지젤」
합창단 여름 맛이 특별기획공연 「무서운 음악회 시즌2」
합창단 울산·부산·경남 교류음악회 「여름밤에 듣는 꿈의 남성합창」
무용단 「소리여행_퓨전국악」
- 14 ■ **기획공연**
「노이즈 오프」
월드스타 「발레리나 강수진과 친구들」 내한 공연
스위트 콘서트 「김호영의 뮤지컬 파티」
모닝콘서트 세상에서 가장 값진 치유 음악회 「شم표」
모닝콘서트 음악으로 떠나는 배낭여행 「여보세요! 거기 유럽이죠?」
- 19 ■ **예술을 말하다**
세이지 게이츠헤드
오페라의 역사 Ⅲ
뉴욕 솔로몬 R. 구겐하임 미술관
스트라빈스키의 「불새」
- 28 ■ **UCAC는 지금**
교향악단 「미국/캐나다 투어 공연(포틀랜드편 I)」
- 30 ■ **7·8월의 공연·전시**
공연·전시 가이드
7·8월의 공연·전시

울산광역시문화예술회관 월간 문화예술정보지 2012. 7·8월호 | 통권 제156호

- 발행처 / 울산문화예술회관
울산광역시 남구 변영로 200(달동 413-13)
T. 052)226-8241 홈페이지 http://www.ucac.or.kr
- 발행인 / 과상희 ●편집인 / 안종철
- 기획·편집 / 김현욱, 박용운, 박영진, 권혁민, 김내영
- 디자인·제작 / 동방디앤피 T. 052)266-8500



[울산시립교향악단]

태화강대공원 야외음악회

일시 2012. 7. 5(목) 20:00

장소 태화강대공원 야외공연장

지휘 김홍재(예술감독 겸 지휘자)

협연 소프라노 강혜정, 바리톤 오승용

출연 울산시립교향악단, 울산시립무용단, 울산시립합창단, 부산시립합창단

※ 우천시 공연 취소(취소 여부는 공연당일 울산문화예술회관 홈페이지에 공지)





울산시립교향악단이 울산광역시 승격 15주년을 기념하여 울산 시민들의 자랑이자 휴식처인 태화강대공원을 찾는다. 7월의 무더위를 시원하게 날려 줄 이번 연주회는 그 규모만으로도 관객들의 시선을 사로잡을 것이다. 대한민국 애국가의 주인공 안익태 작곡가의 <한국 환상곡>이 울산시립교향악단의 연주와 울산시립합창단, 부산시립합창단의 100여명이 넘는 연합합창으로 그 웅장함과 감동이 그 어느 연주회보다 관객들의 마음을 사로잡을 것이며, <청산별에 풍년이 왔네>에서는 우리의 농악과 오케스트라의 환상적인 하모니가 우리의 소리를 잘 표현해 낼 것이다. 또한, 협연으로 국내 최정상급 성악가인 소프라노 강혜정과 바리톤 오승용이 출연한다.

소프라노 강혜정은 연세대학교 성악과를 졸업하고 도미, 뉴욕 매네스 음대에서 석사와 최고 연주자 과정을 전학년 장학생으로 졸업하였다. 2005년 미국 뉴욕 The Michael Sisca Opera Award를 수상한 그녀는 그해에 뉴욕 Kaye Playhouse에서 공연한 오페라 마술피리의 파미나 역으로 데뷔, 뉴욕타임즈의 "다채롭지만 유연한, 너무나 달콤한 소프라노"라는 극찬을 받은 바 있다. 현재는 계명대학교 성악과 교수로 재직 중이며, TVN 케이블 방송 '오페라 스타 2012'에서 가수 신호범과 함께 출연하였다.

바리톤 오승용은 울산 현대고등학교, 경북대학교를 거쳐 이탈리아 산타체칠리아에서 유학을 한 울산의 자랑스러운 재원이며, 유학중 디 스테파노 콩쿨, 비오티 발세지아 콩쿨등 일본 유럽등의 10여개의 콩쿨에서 1위의 성적으로 우승하였으며, 귀국 후 국립 오페라단의 상임 단원으로 활약 하였고, 코리안 심포니, 수원시향, 강남 심포니, 충남시향등과 협연을 가졌으며, 베토벤의 9번 합창, 브람스 도이치 레퀴엠, 모차르트 레퀴엠, 포레의 레퀴엠, 드보르작의 테데움 등의 종교곡과 오페라 라보엠, 리골렛토, 루치아, 춘희, 오텔로, 아이다, 나비부인, 토스카, 카르멘, 베르테르, 팔리아치, 카발레리아 루스티까나, 살로메, 보체크 등의 주역으로 활약하였다.

드넓은 태화강대공원에서 펼쳐지는 울산시립교향악단의 야외공연은 보지 않으면 후회할 만큼 기대해도 좋은 감동의 공연이 될 것이다.

글 | 최연수(울산시립교향악단 단무장)



태화강에서 펼쳐지는 시립교향악단의 광역시승격 15주년기념 기획공연

2012 창작뮤지컬 태화강



태화강대공원 공연

일 시 2012. 7. 13(금), 7. 14(토) 20:00

장 소 태화강대공원 야외공연장

특별출연 최주봉(아란불), 전무송(제사장)

김정권/최성원(쇠불칸), 정지윤/조연주(해울이), 강효성(별리), 최대우(해부루)

박승태(유모), 이아청(동이), 황성호(상노), 이정진(을녀), 김용근(아소), 박원우(철두)

김정상(여신), 방명희(아라), 양민(바람), 최효선(미리별), 박신영(소년쇠불칸)

출 연 울산시립교향악단, 울산시립합창단, 울산시립무용단



여수세계박람회 공연

일 시 2012. 7. 21(토) 18:00

장 소 여수세계박람회 천막극장

출 연 울산시립합창단, 울산시립무용단



창작 뮤지컬 “태화강”은 새로운 배역진과 완벽한 작품성으로 시민들에게 감동을 선사한다.



반구대 암각화, 쇠부리, 태화강 대숲 등 울산의 문화적 상징성이 파노라마처럼 펼쳐지는 창작뮤지컬 “태화강”은 울산의 철기문명과 해양문명의 만남을 해울이와 쇠불간의 애뜻한 사랑이야기로 펼쳐낸다. 이 작품은 울산의 상징성을 신화적으로 엮은 창작 뮤지컬로, 울산문화예술회관 개관 이후 시립예술단 3개 단체가 합동으로 추진하는 최초의 공연으로 그 의미가 각별하다.

특히, 태화강이 죽음의 강에서 생명의 강으로 새롭게 되살아난 것처럼 죽은 쇠불간이 부활하여 영원한 사랑을 노래하는 장면 등 아름다운 태화강의 역사를 나타내는 장면들이 새롭게 각색되어 관객의 기대에 부응하는 작품으로 재탄생 하였다.

오는 7월 13일 창작 뮤지컬 “태화강”은 태화강대공원 야외무대에서 그 화려한 막을 올린다. 울산의 브랜드 뮤지컬로 자리 잡은 공연으로서 2012 여수세계박람회에 초청되어 7월 21일에 울산 예술의 우수성을 대내외에 과시 할 것이다.

2012 창작 뮤지컬 “태화강”은 작품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 2010년 제작진이 그 중심을 이루고 있다. “외솔 칸타타”의 작사가이자 제 1회 울산광역시 문화상 수상자인 박종해 시인이 작시를, “오랑캐 여자 옹녀”, 마당놀이 “의성 허준”, “퓨전 심청” 등의 작곡과 음악 감독으로 신선한 감각을 선보인 30대 작곡가 유정현씨가 작곡을, 제 23회 전국연극제 대통령상을 수상한 “귀신고래 회유해면”의 작가이자 연출가인 박용하씨가 직접 대본과 연출을 맡아 완성도 높은 작품성을 선보일 예정이다. 또한 대내외적으로 최고의 예술성을 자랑하는 울산시립교향악단·시립합창단·시립무용단이 관객들에게 최고의 무대를 선물할 것이다. 이 외에도 시민들에게 수준 높은 창작 뮤지컬을 선사하기 위해 170여명의 제작진과 출연진이 혼신의 힘을 다하고 있다.

이러한 노력으로 창작뮤지컬 “태화강”은 태화강의 생명성을 아름다운 작품으로 승화시켜, 산업화뿐만이 아닌 자연을 벗삼으며 뿌리 깊은 역사를 가진 울산 시민들의 자긍심을 고취시켜줄 것으로 기대된다.

글 | 이가윤(태화강 뮤지컬 조연출)



[울산시립교향악단 제158회 정기연주회]

스트라빈스키 봄의 불새

울산시립교향악단
2012. 7. 20(금) 20:00
울산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

지휘 최희준 (코리안심포니 예술감독)
협연 바이올린 이정일
입장료 R석 1만원, S석 7천원, A석 5천원
(회원 30%, 단체 20% 할인)

현대음악의 새로운 장을 연 러시아 작곡가 '스트라빈스키' 이번 정기연주회에서는 제1부 모차르트의 음악과 제2부 러시아 음악을 선보인다.

1부는 모차르트의 피가로의 결혼 서곡과 바이올린 협주곡 제4번, 2부는 러시아의 5인조 중의 한명인 보로딘의 <폴로베츠인의 춤>과 스트라빈스키의 <불새>가 연주된다. 메인곡은 스트라빈스키의 '불새'로 스트라빈스키의 3대 발레곡 <불새>, <페트라슈카>, <봄의 제전> 중에서 이번 연주곡은 <불새>이다. 이고르 스트라빈스키(Igor Stravinsky, 1882~1971)은 러시아의 작곡가로, 올해는 스트라빈스키 탄생 130주년이 되는 해이다. 한낱 무명 작곡가였던 스트라빈스키를 일약 스타덤에 올려 놓았던 발레음악 <불새>는 스트라빈스키의 나이 28세 때인 1910년 작품이다. 또한, 보로딘의 <폴로베츠인의 춤>은 오페라 '이고르 공' 중에서 2막에 나오는 폴로베츠인의 춤 장면을 관현악곡으로 편곡한 곡이다.

코리안심포니 예술감독 '최희준' 과

울산대학교 바이올린 교수 '이정일' 의 환상적인 호흡

이번 연주회에서는 코리안심포니의 예술감독과 한양대학교 교수로 재직 중인 최희준의 객원지휘와 현재 울산대학교 바이올린교수로 재직 중인 이정일이 함께 한다. 지휘자 최희준은 베를린 한스 아이슬러 국립음대 지휘과에서 디플롬과 최고연주자 과정을 졸업하고 드레스덴 국립음대 개교 이래 최초로 지휘과 최고연주자 과정을 졸업하였다. 그는 2003년 독일 전 음대 지휘 콩쿠르에서 카라얀상을(1위), 2005년 바트 훔부르크 지휘 콩쿠르에서 1위를 차지하였고, 그간 베를린 심포니, 예나 필하모니, 카셀, 브란덴부르크, 라인란트 팔츠(Staatsorchester Rheinland-Pfalz) 등의 오케스트라를 지휘하였으며, 현재 코리안심포니 제4대 예술감독과 한양대학교 지휘과 교수로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다. 바이올리니스트 이정일은 예원, 서울예고와 한양대 음대 졸업 후 오스트리아 째쯔부르크 모짜르트음에서 Kleines Diplom에 이어 Grosses Diplom과정 최우수 졸업 및 Magister 학위를 취득하였으며, 귀국하여 다수의 연주활동을 하며 현재 코리안심포니 객원 악장과 울산대학교 교수로 재직 중이다. 이 둘은 오래 전부터 서로 호흡을 맞춰 온 사이로 이번 울산시향정기연주회를 통해 완벽한 앙상블을 이루어 낼 것이다.

글 | 최연수(울산시립교향악단 단무장)

▲ 바이올린 이정일

07.20

[울산시립합창단 제77회 정기연주회]

Happy Concert

한 여름밤의 아름다운 노래들

울 산 시 립 합 창 단
2012. 7. 3(화) 20:00
울산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

지 휘 구 천 (예술감독 겸 지휘자)
특별출연 Elec Cello 주린
입 장 료 전석 5,000원
(회원 30%, 단체 20% 할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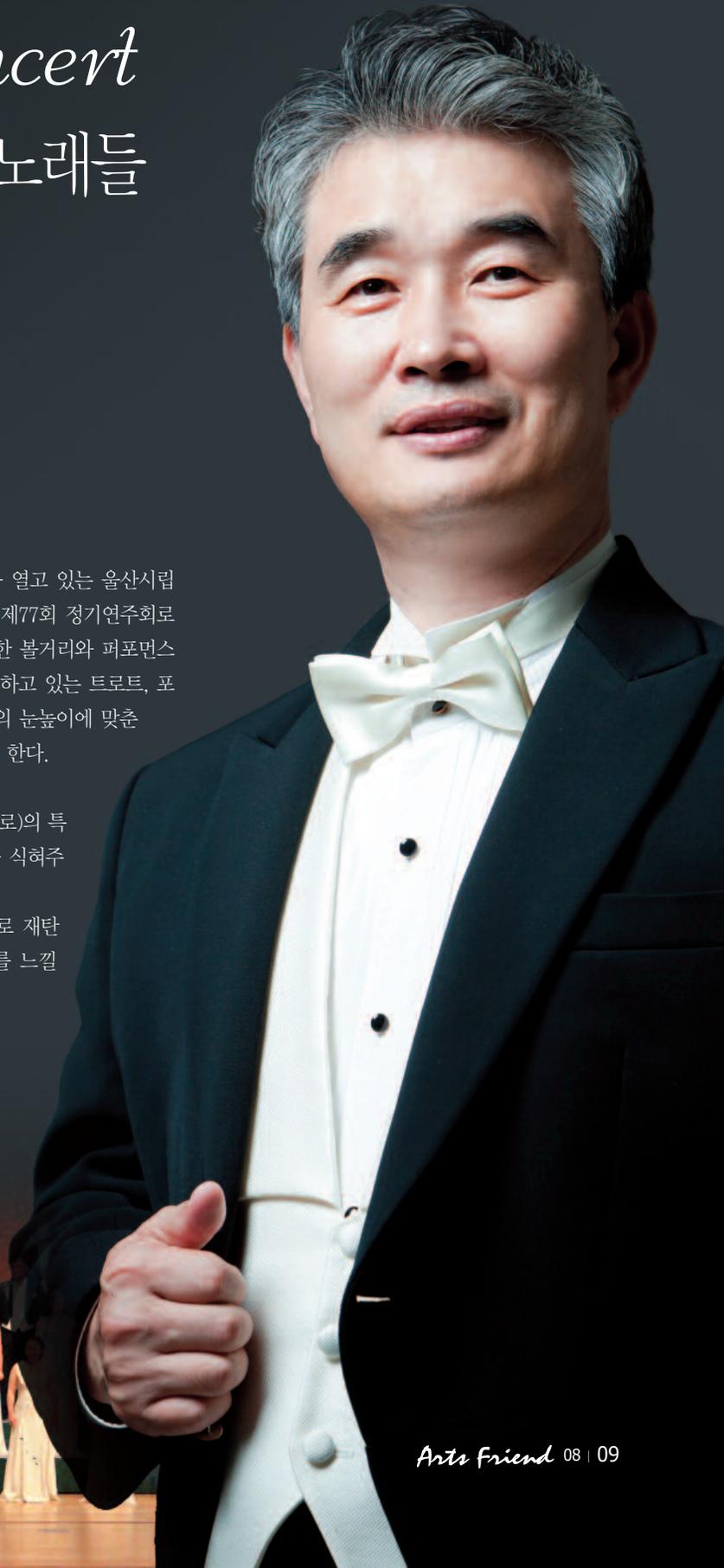
구 천 예술감독 겸 지휘자와 함께 새로운 합창음악의 지평을 열고 있는 울산시립합창단에서 행복 콘서트 '한 여름 밤의 아름다운 노래들'을 제77회 정기연주회로 마련합니다. 2012 행복 콘서트에서는 예년에 선보였던 화려한 볼거리와 퍼포먼스를 지양하는 대신 메스미디어(mass media)를 통해 손쉽게 접하고 있는 트로트, 포크송, 댄스곡, 팝송 등 대중가요를 편곡하여 보다 더 관객들의 눈높이에 맞춘 프로그램에 합창의 묘미를 더한 아름다운 음악을 선사하고자 한다.

특히 전체 프로그램의 분위기와 어울리는 Elec Cello (전자 첼로)의 특별무대를 마련하여 더위의 시작을 넘어 한 여름 무더운 밤을 식혀주고 출연자와 관객들 모두에게 행복감을 전하고자 한다.

더불어 잘 훈련된 고급스러운 소리를 통하여 최고의 음악으로 재탄생되는 대중가요의 화려한 변신을 통해 색다른 카타르시스를 느낄 수 것으로 기대한다.

글 | 김성민(울산시립합창단 단무장)

07.03



[울산시립교향악단]

발레음악 지젤



울산시립교향악단
2012. 8. 24(금), 25일(토)
울산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

지휘 이일구 (김천시향 지휘자)
출연 울산시립교향악단, 광주시립무용단

광주시립무용단과 함께하는 아당의 발레 '지젤' 전막공연

울산시립교향악단에서는 2010년부터 영, 호남 교류의 일환으로 광주시립무용단(발레단)과 매년 해설이 있는 발레음악 시리즈를 기획해 왔으며, 이번 공연은 울산지역에서 좀처럼 발레 전막 공연을 감상할 수 없다는 울산시민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올 여름 시즌에 아당의 낭만 발레 '지젤' 전막을 올리게 되었다. 광주시립무용단은 '지젤'을 1984년 초연한 이후 1985년, 1988년, 1994년, 1999년, 2007년에 잇따라 무대에 올린 바 있으며, 올 해 4월 6일 ~ 7일 광주문예회관에서 본 공연을 올렸다.

아돌프 아당의 낭만발레 <지젤>

《지젤》(정확한 제목은 《지젤 또는 빌리들》, Giselle ou les Wilis)은 아돌프 아당의 음악과, 페오필 고펜에와 쥘-앙리 베르느와 드 쌍-쥘리주의 공동 각본, 정 꼬랄리와 쥘 삐로의 공동 안무로 창작된 발레이다. 1841년 6월 28일에 파리 오페라 극장에서 초연된 이후로 낭만 발레의 대명사로 일컬어진다.

유럽의 문학 속에서 무도회의 장면을 흔하게 볼 수 있다. 춤은 음악과 함께 그네들의 일상생활의 일부가 되어 있기 때문이다. 중세 독일에서 전해지는 옛 전설에 의하면 춤을 좋아하는 아가씨가 결혼 전에 죽으면 '빌리'라는 춤의 요정이 되어 밤마다 무덤에서 빠져나와 젊은이를 유혹하여 죽을 때까지 미친 듯이 춤추게 한다고 한다. 고전 발레의 명작으로서 현재도 무대에 올려지는 '지젤'은 이 전설을 바탕으로 이야기가 구성되어 있다.

글 | 최연수(울산시립교향악단 단무성)



08.24,25

07.31

울 산 시 립 합 창 단
2012. 7. 31(화) 20:00
울산문화예술회관 소공연장

예술감독 구 천
지 휘 한성용
입 장 료 전석 5,000원
(회원 30%, 단체 20% 할인)

‘무서운 음악회 시즌2’는 여름을 맞이하여 울산시립합창단 한성용 부지휘자의 지휘로 2011년 국내에서 처음으로 선보여 높은 호응을 이끌어낸 ‘무서운 음악회’를 더욱 업그레이드 시켜 올 해 두 번째로 준비한 실험적인 기획공연이다.

여름의 특성에 맞는 공포와 서스펜스가 어우러진 재미있고 함께 즐길 수 있는 음악회로서 무대와 의상, 조명 그리고 테마가 있는 대중적인 프로그램을 통해 합창음악의 지평을 넓히고자 하는 바람으로 마련하였습니다. 무더운 여름 밤을 시원하게 시켜줄 ‘무서운 음악회 시즌2’에 시민 여러분들의 많은 호응과 관심을 부탁 드립니다.

글 | 김성민(울산시립합창단 단무장)

[여름 맞이 특별기획공연]

무서운 음악회 시즌2



울산, 부산, 경남 교류음악회

여름밤에 듣는 꿈의 남성합창

울산시립합창단

- 8. 21(화) 20:00 울산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
- 8. 22(수) 19:30 마산 3.15아트센터
- 8. 24(금) 19:30 부산문화회관 대공연장

지휘 구 천 (예술감독 겸 지휘자)

출연 울산시립합창단, 부산시립합창단, 창원시립합창단

특별출연 울산시립합창단(여성합창), Elec Cello 주린

입장료 전석 5,000원 (회원 30%, 단체 20% 할인)

3개시·도 교류음악회는 지난 2001년부터 울산, 부산, 경남의 문화·예술 교류를 통한 상호 발전을 위해 각 시를 대표하는 예술단의 합창단들이 모여 연합합창 형식으로 마련해온 특별음악회이다.

지역별 순서에 따라 주관하는 음악회로서 올 해로 12회째를 맞아 울산시립합창단의 구 천 예술감독 겸 지휘자가 지휘봉을 잡고 울산, 부산, 창원시립합창단이 참여하여 8월 21일(화) 울산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을 시작으로 8월 22일(수) 마산 3.15아트센터 그리고 8월 24일(금)은 부산문화회관에서 마지막 연주를 가지게 된다.

교류음악회 초기에는 남성합창으로 구성된 프로그램을 연주했었고 이후 혼성합창으로 규모를 확대하여 왔으나 요즘 높은 인기를 얻고 있는 합창의 붐 속에서도 쉽게 접할 수 없는 남성합창의 웅장하고 깊은 소리를 전해드리고자 올해는 전 곡을 남성합창만으로 구성하였다. 3개 시·도를 대표하는 남성성악가들의 우렁찬 소리의 향연은 한 여름 밤 무더위를 잊게 만들 소중한 기회가 될 것이다.

글 | 김성민(울산시립합창단 단무장)





퓨전국악 소리여행

울산시립무용단
2012. 8. 31(금) 20:00
울산문화예술회관 소공연장

연출 김상덕 (예술감독 겸 지휘자)

‘나는 무용수다’, ‘뮤직 & 뮤지컬’, ‘꽃길 바람에 피고 지고’ 등 다양한 장르를 넘나드는 참신한 공연으로 관객들의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울산시립무용단이 오는 8월 31일(금) 울산문화예술회관 소공연장에서 「소리여행-퓨전국악」으로 무대에 오른다. 이번 공연은 국악관현악 선율을 중심으로 오랫동안 대중의 사랑을 받고 있는 인기 가요와 팝송, 그리고 아름다운 우리의 소리인 민요와 판소리 등을 화려한 춤과 함께 선사하는 퓨전국악 한마당이다. 한 여름 뜨거웠던 태양과 눈부시게 빛나는 해변에서의 행복한 기억 속으로 「소리여행」과 함께 떠나 보시기 바란다.

글 | 신박범(울산시립무용단 단무장)



08.31

똑똑한 코미디의 귀환!

NOISES OFF by Michael Frayn 노이즈 오프



7.6(금) 19:30 7.7(토) 15:00, 19:30

울산문화예술회관 소공연장

파격적인 소재와 실 새 없는 웃음! 6년 만에 대학로를 거쳐 울산에 오다!

연극 <노이즈 오프>는 2006년 한국 초연에서 안석환, 양택조 캐스팅과 함께 '무대 뒤 배우와 스태프들의 이야기' 라는 파격적인 소재와 폭소 코드로 '2006년 최고의 흥행 연극'으로 기록된 흥행작이다. 이 작품은 1막에서 주 배경이 되는 6미터 높이의 2층집 세트를 180도 뒤집어서 관객들에게 백스테이지의 모습을 여실히 보여주며, 무대 뒤편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대한 관객들의 궁금증을 시원하고 재미있게 풀어준다. 연극 <노이즈 오프>의 선풍적인 인기는 2007년 앙코르 공연에서도 계속되어 2007년 앙코르 공연이 막을 내렸을 때, '빠른 시일 내에 다시 공연을 볼 수 있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좋은 작품을 당분간 볼 수 없다고 생각하니 아쉽지만 하다.'는 관객들의 아쉬움 섞인 평이 쏟아지기도 했다. 6년간의 기다림을 뒤로 하고 2012년 7월, 연극 <노이즈 오프>가 대학로를 거쳐 울산에 온다. 뮤지컬 <비밥>의 코미디 연출이자 뮤지컬 <점프> 연출로도 유명한 배우 백원길이가 연출로 참여해 활기찬 무대와 빠른 템포로 관객들에게 더욱 업그레이드 된 코미디를 선사한다.

개성넘치는 연기파 배우들의 완벽한 앙상블로 선보일 고품격 코미디!

2012년 연극 <노이즈 오프>는 연기력을 인정받으며 TV, 영화, 연극 무대를 넘나들며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 배우들이 대거 출연한다. 1996년 KBS 슈퍼탤런트로 데뷔하며 드라마 <근초고왕>, <대왕세종>, <야인시대> 등 시대극과사극에서 특히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는 안신우가 이번에는 극중극 <빈집 대소동> 공연을 맡게 된 다혈질 연출로 변신하여 2008년 이후 4년 만에 연극 나들이에 나선다. 또한, 최근 드라마 <해를 품은 달>과 <신데렐라 언니>에서 호연을 보여준 배우 서현철이 2006, 2007년 로저에 이어 필립으로 출연하고, 대학로가 사랑하는 여배우 황정민, 2012 연극 <노이즈 오프>의 연출이자 뮤지컬 <점프>의 연출로도 유명한 백원길이가 배우로 합류하였다. 그 밖에, 김동곤, 김로사, 이주원, 방현숙, 김나미 등 탄탄한 실력과 거부할 수 없는 매력을 갖춘 화려한 경력의 배우들의 참여로 연극 <노이즈 오프> 명성을 이어갈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

월드스타 <발레리나 강수진과 친구들> 대한 공연

Sue Jin Kang

with Friends

7.24(화) 20:00 울산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

월드스타 강수진이 직접 구성한 고품격 특별 갈라공연

무용의 아카데미상으로 불리는 브노아 드 라 당스 최우수 여성무용수상을 수상한 월드스타, 독일 슈투트가르트 발레단 수석 무용수 강수진이 자신이 직접 예술감독을 맡아 구성한 특별한 공연을 7월 고국의 관객들을 위해 마련했다. 강수진은 이번 특별한 투어 공연을 위해 자신과 함께 대부분의 공연을 함께하고 있는 환상의 파트너로 불리는 2명의 슈투트가르트발레단 주역 무용수와 앞으로 월드 스타로서의 성장 가능성이 매우 높은 외국에서 활약하고 있는 한국 무용수, 그리고 얼마 전 해외 발레단 진출이 확정된 국내 발레 스타, 향후 해외 무대로의 진출이 유력시 되는 유망 발레 댄서, 그리고 해외 무대에서도 잘 알려진 국내 최고의 현대무용단체 LDP의 무용수 12명을 포함, 20여명에 이르는 스타급 무용수를 직접 선정했다.

강수진의 영원한 파트너, 마라인 라데마케르와 제이슨 레일리

독일 뿐 아니라 전 세계 투어 때마다 동행하는, 슈투트가르트 발레단의 주역 무용수 마레인 라데마케르(Marijn Rademaker)와 제이슨 레일리(Jason Reilly)가 강수진과 함께 내한, 4개의 각각 다른 성격의 2인무와 자신들의 솔로춤을 선사하고 국제 콩쿨에서 우수한 성적으로 입상하며 일찌감치 국제 무대의 주목을 받은 채지영과 전 국립발레단 수석 무용수인 윤전일, 국내 정상급 현대무용단체인 LDP(Laboratory Dance Project)가 특별 초청 단체로 참여하여 차세대 발레계를 이끌어갈 유망주인 윤별, 박소연이 출연하여 최고의 무대를 선사 할 것이다.

글 | 박용운(울산문화예술회관 공연과 주무관)



스위트콘서트

김호영의 뮤지컬파티

7.12(목) 20:00 울산문화예술회관 소공연장

**김호영의 특특 튀는 '뮤지컬 파티' 로의 초대!
국내 탑클래스 뮤지컬 배우 정선아 출연**

특특 튀는 2012 스위트콘서트 시즌5가 7월에 울산시민을 찾아온다. 울산문화예술회관의 자체 기획공연인 스위트콘서트가 7월 12일 오후 8시 울산문화예술회관 소공연장에서 '김호영의 뮤지컬 파티' 로 올해 들어 세번째 공연이 펼쳐진다.

이번 공연은 지난해 사회를 맡아 스위트 콘서트 관객들로부터 많은 박수와 환호를 받았던 뮤지컬 배우 '김호영'의 사회로 뮤지컬 작품, 뮤지컬에 얽힌 각종 비하인드 스토리, 최근 뮤지컬계의 동향 등을 소개하고 뮤지컬 속의 주옥같은 넘버들도 불러줄 예정이다.

특히, 이 날 공연에는 국내 최고의 인기를 누리고 있는 뮤지컬 배우 정선아가 출연하여 유명 뮤지컬 명곡들을 들려주고, 뮤지컬 앙상블 팀 '아이린'이 출연하여 뮤지컬 속의 음악과 화려한 뮤지컬 군무도 함께 감상해 볼 수 있다.

그 동안 스위트콘서트는 매회 매진되는 인기록과 함께 울산 뮤지컬 팬들로부터 꾸준히 사랑을 받고 있으며, 이번 공연도 무대와 객석 간의 경계를 허무는 관객 참여형 프로그램으로 그 열기가 더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호영의 시원한 입담과 재치로 진행되는 이번 공연을 통해 친구, 남편, 직장 동료들과의 감동적이고 아름다운 봄 추억을 맘껏 가져가시길 바라며 시민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한편, 지난 2009년부터 시작된 스위트콘서트는 뮤지컬 배우 백재현, 강호성, 김선영, 홍지민, 김호영 등 쟁쟁한 스타급 뮤지컬 배우들이 출연했으며, 올해는 뮤지컬 배우 김호영과 최정원의 진행으로 6회에 걸쳐 공연될 예정이다.(7월12일, 9월6일, 11월8일, 12월6일)

글 | 박용운(울산문화예술회관 공연과 주무관)

울산문화예술회관 기획공연 모닝콘서트 Season.5
세상에서 가장 값진 치유음악회

쉼표,



연출 안주은



음악치료사 강현정



피아노 황다운

7.19(목) 11:00 울산문화예술회관 소공연장

긍정을 부르는 힘, 치유콘서트 '쉼표' 울산문화예술회관에서 19일 공연
 오는 7월 19일 오전 11시, 울산 문화예술회관 소공연장에서 세상에서 가장 값진 치유 음악회 '쉼표' 공연이 펼쳐질 예정이다. 울산문화예술회관이 주최하고 아멜라오페라단이 주관하는 본 공연은 울산 문화예술회관이 기획한 다섯번째 모닝 콘서트의 7월 공연으로, 울산 시민들이 '마음이 편한 음악회'를 목표로 하여 공연되고 있다. 본 공연은 연극과 음악 안에 자연스럽게 음악치료가 접목되어 있는 형태로, 파랑새를 찾아가는 과정 속에 다양한 감정을 음악과 극으로 다루고 있다. 시민이 타악기를 직접 연주함으로써 공연에 직접 참여 할 수 있는 프로그램도 있어, 관객과의 활발한 소통이 이루어질 예정이다.

일상에 지친 현대인들에게 음악 치료사가 치료적인 환경 속에서 문제를 긍정적인 방향으로 변화시키기 위하여 음악을 단계적으로 사용하게 된다. 이번 공연을 통한 음악치료는 정신과 신체 건강을 복원, 유지 향상시키기 위해 음악을 사용하여 치료하는 것으로 음악은 우리 몸에 화학적 반응을 일으켜 질병을 치료하고 정신적인 안정과 여유, 풍요를 가져다 줄 것이다.

한편, 본 공연을 주관한 아멜라오페라단은 '음악으로 떠나는 배낭여행', '만화 보고, 오페라 듣자', '샌드 애니메이션 오페라', 'Shall We Dance' 등 클래식이 특정 계층의 전유물이 아닌 남녀노소 누구나 부담 없이 즐길 수 있는 다양한 공연을 기획해 펼치고 있다.

글 | 박용운(울산문화예술회관 공연과 주무관)

음악으로 떠나는 배낭여행

여보세요!

거기, 유럽이죠?



8.16(목) 11:00

울산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

‘음악과 함께 떠나는 배낭여행’
울산문화예술회관에서 8월 16일 공연

울산문화예술회관에서 8월 16일 아델라오페라단의 ‘음악과 함께 떠나는 배낭여행’이 공연될 예정이다. 목요일 모닝콘서트 시즌5 8월 공연인 ‘여보세요! 거기 유럽이죠?’는 공연을 통해 여행을 계획하고 있는 관객에게는 유용한 정보와 설렘을 안겨주고, 이미 다녀온 분들에게는 여행 당시의 추억을 다시 한 번 떠올릴 수 있게 해주는 계기를 마련해 줄 예정이다. 이번 공연에서는 유럽 5개국의 대표적인 음악을 흐름에 따라 자연스럽게 표현한다. 현악 4중주로 시작하는 공연은 독일과 오스트리아를 출발해 오페라의 중심 이탈리아, 상송의 나라의 프랑스를 지나 뮤지컬의 본고장 영국까지 각 나라를 대표하는 유명한 음악을 통해 즐겁게 여행을 떠난다. 딱딱한 진행의 해설자가 아닌 배낭을 맨 연극자가 맛깔 나는 연기로 공연을 진행하여 관객으로 하여금 공연 내내 재미를 느끼게 하며 생생한 유럽의 분위기를 전할 예정이다.

이 공연은 ‘작은별 변주곡’, ‘사랑의 기쁨’, ‘헝가리 무곡’부터 ‘투우사의 노래’, ‘여자의 마음’, ‘피노키오’, 영화 <리셉션>에 나온 ‘난 아무것도 후회하지 않아요’, 뮤지컬 <지킬 앤 하이드>, <CATS>의 ost 등귀에 익숙한 곡들로 짜임새 있게 구성되어 있다.

글 | 박용운(울산문화예술회관 공연과 주무관)



Arts Friend

Part.1 예술을 말하다

세이지 게이츠헤드

오페라의 역사 Ⅲ

뉴욕 솔로몬 R. 구겐하임 미술관

스트라빈스키의 '불새'

Part.2 UCAC는 지금

교향악단 '미국/캐나다 투어 공연(포틀랜드 편 I)'

Part.3 7·8월의 공연·전시

공연·전시 가이드

7·8월의 공연·전시



세계 121 Sage Gateshead

세계 1호헤드

글 | 이장직

중앙일보 음악전문 기자를 역임하고, 『위기의 아트센터』, 『레인보우 클래식』 등의 저서가 있으며, 현재 <월간 객석> 선임기자로 활동 중이다.



2004년 12월 세계 최초의 경사진 다리로 유명한 '발틱 밀레니엄 브리지' 옆에 원형 유리지붕을 덮은 공연장이 들어섰다. 높이 60m, 길이 100m, 무게 720t짜리 대형 유리지붕이 1,650석짜리 콘서트홀과 400석짜리 실내악 홀, 리허설룸, 음악학교, 음악정보센터를 뒤덮고 있다. 타인강의 게이츠헤드 밀레니엄 브리지의 아치에서 힌트를 얻었다.

타인 강변에는 3개의 문화 랜드마크가 있는데, 인접 도시 뉴캐슬과 연결되는 눈썹 모양의 게이츠헤드 밀레니엄 브리지(2001년), 1950년대 곡물 창고와 제분 공장을 개조한 발틱 현대미술 센터(2002년), 100m 길이의 유리 지붕으로 뒤덮은 세이지 게이츠헤드(2004년)가 그 주인공들이다.

세이지 게이츠헤드 음악당은 게이츠헤드 부두 개발 프로젝트의 일환이다. 과거 밀가루를 실어 나르던 타인강의 남부 해안도로에 건설됐다. 로비 중앙 홀은 스윙 브리지, 밀레니엄 브리지와 연결되어 있어 중요한 보행로 역할까지 맡는다. 로비에는 다양한 설치 작품으로 아트센터의 역할을 톡톡히 해낸다. 중앙 홀에서 위층으로 올라가는 네 개의 대형 계단은 각 홀을 둘러싸고 있는 로비와 연결된다. 콘서트홀도 공연 시간을 제외하면 항상 문이 열려 있어 관광객들이 자유롭게 홀 내부를 들여다볼 수 있게 했다. 노던 록



게이츠헤드는 잉글랜드 북부 타이인위어주의 면적 143km², 인구 19만의 작은 도시다. 하지만 강변에 속속 들어선 문화 랜드마크 덕분에 연간 100만명 이상의 관광객들이 이곳을 다녀간다.



Sage Gateshead



파운데이션 홀은 반 이상이 유리로 둘러싸여 있다. 300석 규모의 공연장이지만 리허설 룸으로도 쓰인다. 주말에는 노던 시포니아와 합창단의 리허설이 열릴 때도 유리 벽 바깥에서 그 모습을 볼 수 있다. 홀 2는 세계에서 유일한 열 개의 벽면을 지닌 공연장이다. 세이지 게이트헤드는 빈 무직페어라인 홀을 모델로 설계했다. 이미 음향적 우수성이 여러 차례 검증된 바 있는 구두상자형 객석 구조를 채택하고 있다. 지휘자 로린 마젤은 세이지 게이트헤드의 음향을 '세계 베스트 톱 5' 안에 넣었다. 물론 무직페어라인도 톱 5 안에 들어 있다. 마이크와 스피커를 사용하는 팝 음악 공연에도 최적화된 음향 조건을 내기 위해천장 패널과 흡음 커튼을 움직여 잔향 시간을 조절한다.

세이지 게이트헤드는 처음 설계 단계에서부터 상주 단체인 노던 시포니아를 염두에 두었다. 사용자가 누가 될지도 불분명한 상태에서 어정쩡한 크기로 짓기 시작하는 국내 대부분의 공연장과는 다르다. 원래 다른 목적으로 지은 건물을 다르게 사용하려면 기존 건물의 한계 때문에 적잖은 예산을 들여 개보수 공사를 해야 하기 때문에 매우 번거롭다.

세이지 게이트헤드는 음악회뿐만 아니라 국제회의에 적합하도록 제반 시설을 갖췄다. 개관 후 첫 해에 세이지 게이트헤드에서 열린 국제회의 프로그램이 지역 경제에 미친 파급 효과는 2,900만 파운드(약 580억원)였다. 이는 세이지 게이트헤드의 경제적 파급 효과 중 67%를 차지한다. 현재 국제회의가 세이지 게이트헤드의 공간과 시간을 차지하는 점유율은 5%에 불과하지만 앞으로 더 늘어날 것 같다. 세이지 게이트헤드에서 굵직한 행사들을 유치하면 경제적 수입은 물론 세이지 게이트헤드를 대외적으로 홍보하는 효과도 매우 크다."

음악 공연장 하나 들어섰다고 갑자기 지역 사회 전체가 바뀌는 것은 아니지만 뉴캐슬과 게이트헤드

에 사는 주민들에게 세계 수준의 국제 규모의 공연장을 갖게 되었다는 자부심을 심어준 것은 사실이다. 일부 시민들은 발틱 현대 미술 센터처럼 세이지 게이트헤드도 보통 사람들과는 상관없는 고급문화를 위한 것이라고 반대했다. 돈을 다른 곳에 쓰는 게 낫다는 얘기도 나왔다. 건물에 대해서도 노먼 포스터의 최고 작품이라는 주장이 있는가 하면 '야광 콘돔' 같다는 비아냥도 들었다. 하지만 세이지 게이트헤드는 개관 후 5년간 1억 4,800만 파운드(약 2,960억원)의 경제적 파급효과를 냈다. 새로운 일자리도 생겼다. 하지만 일단 개관 후 지역 사회의 상징적 아이콘으로 자리 잡은 다음 '꿈이 있고 진취적인 도시'의 명단에 올라가면 도시에 투자하는 기업도 늘어날 것이고 주민의 삶의 질이 향상된다.

뉴캐슬 게이트헤드는 인구 40만명에 불과한 강변의 작은 도시다. 그래서 대부분 걸어서 다닌다. 기차, 지하철, 버스 역과 세이지 게이트헤드를 연결하는 하이브리드 연료 버스를 10분 마다 한 번씩 운행하고 있다. 뉴캐슬 공항에서 자동차로 20분 걸린다.

세이지 게이트헤드는 타인 강을 사이에 두고 뉴캐슬은 강의 북쪽, 게이트헤드는 강의 남쪽에 있다. 두 지역 사회가 조심스럽지만 현실적인 협력 관계를 구축하고 있다. 세이지 게이트헤드는 2008년 ECHO(유럽콘서트협회) 회원에 가입했다. 현재 회원 공연장은 21개. 기존 회원들의 엄격한 심사를 거쳐 초청 형식으로 회원 자격을 얻는다. 영국에서는 런던 바비칸센터, 버밍엄 심포니홀과 세이지 게이트헤드 뿐이다. 세이지 게이트헤드는 지역 주민들이 적극 참여하는 공간이다. 연중 무휴로 하루 16시간 로비를 개방한다. 연주자와 청중이 로비에서 함께 휴식을 즐기면서 어울리도록 했다. 교실 25개를 갖춘 음악학교에서는 지역 주민들에게 무료로 악기를 가르친다.

오페라의 역사 III

글 | 송종건

영국 런던 라반센터에서 무용정치학, 무용사, 무용미학을 전공하고 『무용예술의 존재론적 특성과 비평』, 『무용 그리고 '움직임의 연기』, 『무용과 비평』 등의 저서가 있으며, 현재 <무용과 오페라> 발행인 겸 작가로 활동 중이다.



“오페라의 발상지 이탈리아는 바로크 시대부터 오페라가 웅성하게 꽃을 피우고, 그 영향이 국경을 넘어 유럽의 여러 나라들로 퍼져나갔다. 프랑스나 독일, 영국에서도 이탈리아 오페라의 영향을 받아 자국의 개성과 취향에 맞게 발전을 하게 되는데 오늘날 오페라의 주요한 축을 담당하고 있는 프랑스 오페라가 이탈리아의 오페라에서 어떠한 영향을 받았으며 어떻게 발전해 나갔는지 알아보자.

프랑스 오페라와 발레는 피렌체 출신의 프랑스 궁정 음악감독 릴리에 의해 발전된다. 릴리는 루이 14세의 무용교사 겸 라틴어 교사로서 파리의 궁전에 입성하였다. 릴리는 프랑스의 천재극작가 몰리에르와 함께 작업하면서 음악과 극과 발레가 결합한 코미디-발레를 발전시키는데 ‘부유한 상인(1670)’, ‘강제결혼’(1664) 등의 유명한 작품과 20편 이상의 발레작품을 발표했지만, 루이 14세가 나이 들어감에 따라 자신이 직접 발레에 출연하기가 힘들어지면서 발레에 대한 관심이 줄어들게 된다. 이런 일련의 이유로 해서 릴리는 오페라로 눈을 돌리게 된다.

1669년 파리에 ‘오페라 아카데미’가 창설되었다. 1671년 극장 개관을 기념하기 위해, 페랭의 대본, 캄베르의

음악으로 그들의 합작품인 오페라 ‘포몬’을 발표한다. 음악적, 문학적으로는 미숙한 점은 많았으나 프랑스 최초의 오페라로서 관객들의 인기를 끌었고, 프랑스 오페라라는 장르의 모든 구성의 기본이 되었다. 하지만 페랭이 동업자의 배신에 따른 여러 문제가 발생하여 오페라 독점권을 릴리에게 넘겨주게 된다. 이를 발판으로 릴리는 1672년 왕립 음악 아카데미를 창립하였다. 프랑스 궁정 음악감독 릴리가 이탈리아 출신이라는 사실은 이탈리아의 음악이 프랑스 음악에 얼마나 큰 영향을 끼쳤는지에 대한 반증이기도 하다. 하지만 릴리의 오페라에는 이탈리아 오페라에서 볼 수 없는, 프랑스 오페라만의 특징들이 등장한다.

그의 오페라에는 무용이 주요하게 등장한다. 그리고 프랑스 관객들을 위해 서정적이고 섬세한 선율을 바탕으로 훨씬 극적이면서 가사의 운율을 살릴 수 있게 레시타티보를 만든다. 레시타티보의 반주도 슬픈 장면일 때는 오케스트라 반주를 사용하여 상황을 더욱 구체적으로 묘사를 했다. 특히 전원적 풍경, 전투, 지옥, 장례식 장면과 신들이 하늘에서 내려오는 장면, 마법 장면 등이 그의 오페라에서는 빠지지 않고 등장했으며, 이 장면들에서는 특이한 춤들이 삽입되었다. 릴리의 오페라는 더할나위 없이 화려했고, 장엄했고 변화무쌍했다. 이러한 릴리의 노력은 ‘코미디-발레’, ‘서정비극’ 이란 형태로 발



레와 음악극의 통합을 이루면서 진정한 프랑스 오페라로 가는 길을 열어준 것이다.

릴리의 갑작스러운 죽음 이후 여러 명의 특출한 오페라 작곡가들이 나온다. '샤르팡띠에'와 '라모'가 그 대표적인 주자이다. 샤르팡띠에는 오페라 'Medee(1693)'에서 종전의 이탈리아 영향 아래서 태어난 릴리 오페라와는 사뭇 다른 바그너 스타일의 깊이 있는 순수 오페라로서 샤르팡띠에의 족적을 남기는 작품이다.

라모는 프랑스적인 오페라 작곡가로 릴리의 '서정 비극'을 만개시킨 작곡가였다. 라모의 오페라는 아름다운 프랑스어 음률을 최대한 살리는 매끄럽고 아름다운 대사를 작품에 도입하였다. 당시 오케스트라에 속하지 않았던 클라리넷을 오케스트라에 도입하였으며 라모의 오케스트레이션은 상상을 초월하게 독창적이며 환상적이었다. 바이올린의 피치카토, 글리산도 주법을 도입시킨 이도 라모였다. 오케스트라에서 목관과 현악의 대조를 과감하게 도입하는 등 라모의 음악은 당시로서 진정 아방가르드 하였다. 라모는 오페라에서 불필요한 부분을 모두 잘라내고 릴리보다 더욱 음악적 요소에 비중을 많이 두었다. '우아한 인도인' (1735), '카스토르와 폴릭스' (1737) 도 모두 대성공을 거두면서 릴리의 후계자로 굳히게 된다.

이런 발전이 이루어지고 있던 프랑스 오페라계에 서양 음악사를 대표하는 음악논쟁이 일어나게 된다. 소위 '부풍 논쟁' 그 발단은 1752년에 이탈리아의 부풍 악단이 파리 오페라 극장에서 페르골레지의 오페라 부파 <마님이 된 하녀> 상연하는데서 시작 된다. 프랑스의 전통적인 궁정오페라 및 프랑스 음악의 우월성을 믿는 일파와 이탈리아의 오페라부파, 더 나아가 이탈리아 음악을 신봉하는 일파가 대립하여 격렬한 논쟁을 불러일으키게 되어 프랑스의 모든 지식인들이 휩쓸려 3년간 지속된 논쟁이었다. 이 논쟁에서 정치적으로는 승리를 거둔 프랑스 서정비극파도 전통적인 궁정 오페라, 그리고 프랑스 고전음악의 쇠퇴를 멈추게 할 수는 없었다. 서정 비극이 절정에 달하면서 또 다른 장르의 오페라가 등장하는 계기가 된 것이다.

부풍 논쟁의 결과, 이탈리아 오페라 부파의 영향을 받은 자연스러움이 깃든, 프랑스인들의 정서를 제대로 반영한 참다운 오페라 코미크가 생겨났다. 오페라 코미크는 이제 단순히 재미만은 추구하는 극이 아니라, 오페라 부파처럼 웃음을 유도하면서도 눈물을 자아내는 극 또는 <구원으로 끝나는 극>으로 바뀌고, 관객들은 오페라 코미크에 환호하게 된다.

뉴욕 솔로몬 R. 구겐하임 미술관

글 | 황주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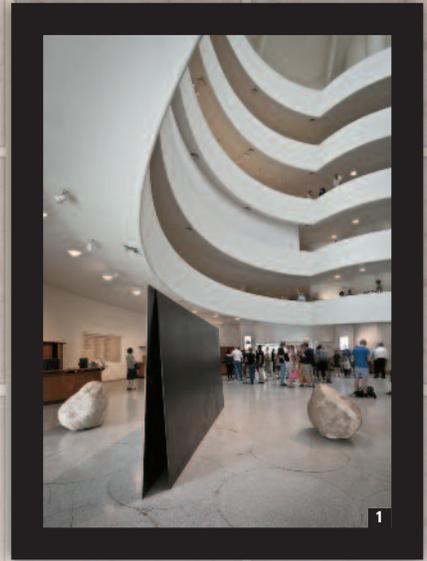
미술 칼럼니스트로 미술사와 정원사 관련 다양한 학회 논문 발표하고 있으며, 현재 번역과 집필, 강의 등의 활동을 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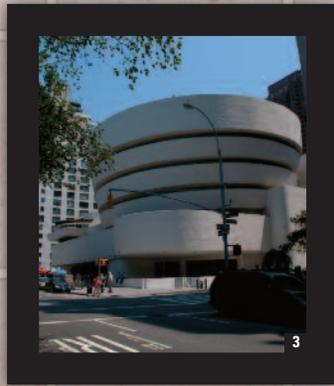
오랫동안 누군가가 모아온 소장품이 미술사에 큰 족적을 남기기도 한다. 과거 왕실이나 귀족, 유력한 상인 가문의 소장품이 루브르나 프라도, 에르미타주, 우피치 미술관의 모태가 되었고, 20세기 초엽부터는 미국의 부유한 실업가들이 그 역할을 이어 새로운 후원자가 되었다. 세계 2차 세계대전 이후 서양 미술의 중심지는 파리에서 뉴욕으로 이동했고, 뉴욕의 여러 미술관 중에서도 보통 구겐하임 미술관이라고 줄여 말하는 솔로몬 R. 구겐하임 미술관이 중추적 역할을 해왔다. 구겐하임 미술관은 2000년의 백남준 회고전이, 작년 2011년에는 이우환 회고전이 열리기도 해 우리에게도 널리 이름이 알려진 미술관이다.

구겐하임 미술관은 광산재벌이자 자선사업가인 솔로몬 R. 구겐하임(Solomon R. Guggenheim, 1861-1949)의 개인 컬렉션에서 시작했다. 그는 1920년대 후반부터 화가 힐라 폰 리베이(Hilla von Rebay)의 자문을 받아 유럽과 미국에서 추상 회화 작품들을 수집하기 시작했고, 1937년 솔로몬 R. 구겐하임 재단을 설립하여 본격적인 미술관 건립의 첫걸음을 떼었다.

미술관은 처음에는 “비구상회화 미술관(Museum of Non-Objective Painting)”이라는 이름으로 1939년 뉴욕 이스트 54번가에 문을 열었고, 구겐하임의 사후 1952년에 솔로몬 R. 구겐하임 미술관으로 개명했다. 7000여점에 이르는 주요 소장품은 인상주의부터 후기 인상주의, 초기 근대, 현대를 아울러 근현대 미술의 보고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화상 저스틴 K. 탄하우저(Justin K. Thanhauser)가 자신의 컬렉션을 구겐하임에 영구 대여하면서 구겐하임의 컬렉션은 더욱 풍성해졌다. 뿐만 아니라 조르지오 아르마니 패션전과 오토바이 예술전등을 개최하여 순수 미술의 경계를 넘나들기도 한다.

구겐하임 미술관을 더욱 유명하게 만든 것은 그 독특한 건축이다. 소장품이 늘어나 기존의 공간만으로는 수용할 수 없게 되자 리베이와 구겐하임은 1943년 미국의 대표적인 건축가 프랭크 로이드 라이트(Frank Lloyd Wright)에게 미술관 설계를 의뢰했다. 그는 15년 동안 700여점의 스케치를 하며 새로운 미술관을 구상했다. 고대 메소포타미아의 신전인 지구라트에서 영감을 받은 그의 “영혼의 사원”은 기존의 미술관과 달리 커튼과 카펫, 계단이 없고, 위로 갈수록 폭이 넓어지는 나선형의





- 1 2011년 이우환 회고전 장면
- 2 프랭크 로이드 라이트와 솔로몬 R. 구겐하임
- 3 구겐하임 미술관의 외관
- 4 프랭크 로이드 라이트 우표 (생략 가능)
- 5 빌바오 구겐하임 미술관의 외관

유연한 구조가 매우 독특하다. 관람객들은 엘리베이터를 타고 꼭대기로 올라간 다음 경사로를 따라 내려오면서 작품들을 관람하고, 중앙의 아트리움을 통해 아래를 내려다 볼 수도 있다.

솔로몬 구겐하임과 라이트는 모두 1959년 10월의 미술관 개관을 보지 못하고 세상을 떠났다. 초기에는 “미술관이라기보다는 라이트 자신을 기념하는 기념물”이라는 혹평을 받기도 했지만, 오늘날에는 “미국에서 가장 아름다운 건축물”이라는 찬사를 듣는다. 개관 당시에는 미술관 건축은 큰 논쟁을 일으켜 건물이 작품을 가린다는 혹평을 받았고, 심지어 21명의 화가들은 기존의 미술관 건물과 달리 벽면이 나선형이라 그림을 평행하게 걸 수 없다고 불평하는 탄원서를 내기도 했다. 하지만 오늘날 구겐하임 미술관의 건물은 “컬렉션에서 가장 중요한 작품”으로 여겨지고, 1966년에 발행된 라이트의 우표의 배경으로 등장하기도 했으며, 2008년에는 미국의 역사적인 랜드마크로 선정되었다.

현재는 글로벌 구겐하임의 전략 하에 이탈리아 베네치아와 스페인 빌바오, 독일 베를린, 등에 분관을 설립

했고, 아부다비와 헬싱키에도 진출할 예정이다. 베네치아 구겐하임 미술관은 솔로몬 구겐하임의 조카인 페기 구겐하임의 컬렉션이 모태가 되었다. 빌바오 구겐하임 미술관은 1997년 스페인 북부 바스크 자치구의 해안도시 빌바오에 세워졌는데, 미국의 건축가 프랭크 게리(Frank Gehry)가 설계한 수십만 개의 티타늄 판이 햇빛에 반사돼 금빛 또는 은빛으로 빛나는 초대형 건물로 유명하다. 지방 정부가 적극적으로 투자하고 후원자들을 유치하여 세워진 빌바오 구겐하임 미술관은 문화를 통한 도시 재생의 가장 성공적인 사례로도 꼽히고 있다.

지난해부터는 BMW와의 장기 협업 프로젝트인 BMW 구겐하임 랩(BMW Guggenheim Lab)을 진행하는 등 새로운 시도를 통해 끊임없이 성장하고 있다.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는 젊은이들이 모여 현대의 도시생활과 관련된 여러 가지 주제를 다루어 미래의 도시상을 제안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이 프로젝트는 앞으로 6년간 세계 9개 도시를 순회하고, 그 결과물을 구겐하임 미술관에서 전시할 예정이다.



스트라빈스키의

불새

글 | 김수연

KBS울산 라디오 「러브 클래식」 진행자, 라디오·TV 프로그램 진행 및 작가로 왕성한 활동을 하고 있다.

불멸, 부활의 상징 불새

● 불새하면 영원히 죽지 않는 상상의 새로 이집트 신화에 나오는 피닉스(Phoenix)를 떠올리게 된다. 인도와 아라비아 사막에서 일생을 보내다 수명이 다해 죽을 때가 되면 페니키아로 가 스스로 불 속으로 날아드는, 그래서 500년 만에 한번 불타 죽고 살아나기를 반복하는 불새는 우리에게 불멸과 부활의 존재로 무한한 상상을 자극한다. 이런 불새의 이미지를 스토리화해 음악으로 표현한다면 어떤 느낌일까?

스트라빈스키의 발레음악 '불새'

● 20세기 천재 작곡가 이고르 스트라빈스키(1882~1971)의 작품 중에 발레음악으로 '불새'가 있다. 러시아의 오랜 전설을 토대로 한 작품으로 불새의 도움을 받아 마왕 카스체이에게 잡힌 왕녀들을 구출하기까지의 과정이 환상적으로 묘사돼 있다. 근대 무용 예술의 거목 디아길레프가 새로 창단한 '러시아 발레단'의 공연을 위해 작곡된 작품이라 발레로 스트라빈스키의 음악을 접한다면 이해가 더 쉽겠지만 발레로 이 작품을 만나기란 쉽지 않다. 사실 현대음악이란 것이 낯설고 어려운 부분이 분명 있다. 다채로운 관현악법과 복잡한 리듬으로 표현된 현대음악은 우리에게 친숙한 고전주의적이고 낭만주의적인 감정 미학과는 뚜렷한 거리감이 있어 단번에 음악을 느낄 수 없다. 하지만 스트라빈스키의 '불새'는 우리가 말하는 완전한 의미에서 현대

음악은 아니다. 그래서 조금은 쉽게 즐길 수 있는 현대음악이라고 소개하고 싶다.

이 작품은 무명 작곡가였던 스트라빈스키를 일약 스타덤으로 올려놓았다. 그의 나이 28살 때인 1910년 작으로, 이 작품 '불새'는 그의 작곡가 경력 초기의 최고 걸작이다. 민족주의적인 낭만주의와 원시주의를 표방하는 그의 3대 발레의 최초 작품이기도 하고, 또 스트라빈스키를 말할 때 반드시 떠올리게 되는 '러시아 발레단' 단주인 디아길레프의 인연도 이 작품에서 시작됐다. 아마 그가 아니었으면 스트라빈스키는 세상에 이름을 드러낼 수 없었을지도 모른다.

스트라빈스키와 디아길레프의 인연

● 스트라빈스키와 디아길레프의 인연은 1908년에 시작됐다. 어느 날 디아길레프와 세계적인 발레 안무가 포킨이 우연히 스트라빈스키의 작품 '불꽃 Op.4'를 듣게 되는 기회가 있었다. 지금까지 들어본 음악과는 너무 다른 참신한 음악이었기에 이들은 충격을 받았다. 그리고 이런 스트라빈스키의 음악은 디아길레프가 오랫동안 바라며 찾아온 음악이었기에 이들은 청년 음악가 스트라빈스키에게 작품 의뢰를 하게 됐다. 그것이 바로 러시아의 옛 전설을 소재로 한 발레음악 '불새' 였던 것이다.

하지만 사실 이 곡은 원래 러시아의 대선배 작곡가인 리아도프에게 먼저 부탁했던 작품이었다. 그러나 리아도프가 게으른 사람이라 언제 작품이 완성될 지 걱정하고 있던 차에 스트라빈스키를 발견

하게 된 것이었고 스트라빈스키는 그 기회를 놓치지 않았다. 당시 스트라빈스키는 "기회를 정해놓고 있었기 때문에 과연 제대로 해낼지 걱정이었지만 그래도 작곡을 맡았다. 술한 대가들과 어깨를 겨루며 이렇게 중요한 일을 하게 되다니 기쁘기 한이 없다"고 회고했다.

러시아 민요로 다채롭게 채색된 불새의 음악

● 스트라빈스키는 러시아 민요의 선율을 대편성의 관현악과 복잡한 리듬을 사용해 표현해냈다. 그리고 디아길레프는 이 음악들을 배경으로 1910년 파리 오페라좌에서 러시아 발레단의 대표적인 안무가 포킨이 만든 춤으로 '불새'를 무대에 올렸다. 발레 자체도 혁신적이고 파격적인 내용으로 인해 센세이션을 일으켰지만 스트라빈스키의 음악은 단번에 시선을 끌었다. 다채로운 선율과 힘이 넘치는 리듬은 불새의 도움을 받아 마왕 카스케이에게 잡힌 왕녀들을 구출하기까지의 과정을 손에 땀을 쥐며 보게 했고, 때문에 스트라빈스키의 불새는 음악의 혁명이라고까지 불려졌다.

나중에 스트라빈스키는 이 작품을 연주회용의 모음곡으로 편곡을 했고 지금은 모음곡 1~3번 중에 주로 2번이 널리 연주되고 있다. 현대음악으로의 보다 쉬운 입문을 원한다면 이 작품을 들어보라. 로맨틱한 아름다움이 넘치는 '공주들의 론도' '불새의 자장가' '카스케이 일당의 흥악한 춤' 그리고 찬란한 고조를 이루는 '피날레'가 마음을 사로잡을 것이다.

울산시립교향악단 미국/캐나다 투어 공연

포틀랜드 편 I

아리랑의 선율이 주었던
감. 동. 의. 드. 라. 마.



울산시립교향악단이 창단된 이래 처음으로 미국과 캐나다 해외 연주를 갔습니다. 이미 울산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에서 '북미순회연주기념연주회'를 감상하셨던 분들이 계셨지만, 한국땅이 아닌 멀리 이국에서 들었던 선율이 주는 감동은 남달랐습니다. 6월4일부터 7박 9일 일정으로 떠났던 열정과 패기로 뭉친 울산시향의 첫 해외 연주 기행을 다 같이 떠나보겠습니다.

첫 해외공연을 떠나는 스태프를 포함한 90여명의 단원들은 설레임, 기대, 긴장이 섞여 있는 표정이었다. 울산공항에서 비행기를 기다리는 대기 시간부터 악기를 연습하는 단원도 있었을 정도니 오죽했으랴.. 6월 4일 첫날부터 우리의 해외연주는 이미 시작되었다. 울산공항을 출발하여, 김포공항, 인천국제공항까지 악기와 개인보따리를 킁킁 짊어지고 90여명의 대군단이 일사분란하게 움직였다. 출국심사를 거쳐 미국 씨애틀 타코마공항으로 떠나는 비행기 좌석에 앉아서야 비로소 한숨 돌릴 수 있었다. 비행시간만 10시간. 다시 포틀랜드행 버스를 탔다. 약 3시간을 달려 도착한 한적한 도시 포틀랜드. 다음날 있을 리허설을 준비하기 위해 늦은 시간까지 현악기와 목관악기 소리가 귓가에 들려왔다. 리허설날 오전, 김홍재 선생님과 단원들은 간단한 아침 식사 후 포틀랜드 시내에 위치한 대학교 강당에 모여 프로그램 곡들을 연주하기 시작했다. 현지 학생 및 학교 관계자들이 오며가며 또는 밖에서 감상하던 감상을 했는데 그들의 입에선 'Wow(와우)' 소리가 낮게 들렸다. 내일 있을 공연의 복선이랄까.. 다음날 아침 간만에 날씨가 좋았다. 여기 포틀랜드와 씨애틀 쪽은 연간 강수량이 6월 기준 380mm로 많은 편이다. 수시로 비가 오고 날씨가 흐려서 집밖에 나오질 않고 독서와 커피를 즐긴다고 한다. 그러나 이날 만큼은 날씨가 무척 좋아서 기분까지 좋았지만, 현지인의 말을 빌리면, 날씨가 좋은날은 공연장에 사람들이 오질 않는다는 청천벽력 같은 소리를 듣게 되었다! '아..우찌 이런일이..'

Portland



미치 그 생각을 하지 못했다. 그러나 관객이 없다고 연주를 소홀히 할 순 없다. 공연장으로 이동하는 동안 마음이 무거웠다. 미국 전체 10위 안에 드는 역사와 규모를 자랑하는 '알린슈나이처 홀', 건물은 낡았지만 절제미가 살아있었고, 깔끔했다. 공연시작 6시간 전 백혜선 피아니스트가 먼저 와서 피아노를 점검하고 있었다. 마지막 리허설, 이제 막을 올리는 시간만 남았다. 밥을 안먹는 단원들이 많았다. 긴장하고 있다는 증거. 수많은 국내 무대에서 연주해 왔을 단원들의 얼굴은 처음 무대를 밟는 듯한 긴장감에 휩싸이고 있었다. 밖은 여전히 맑고 쾌청했고, 오가는 학생들 및 햇빛을 즐기려는 일반인들만이 오가고 있을 뿐 이었다.



2011년도에 세계 최고의 축제로 선정된 포틀랜드 장미축제..그 축제에 공식 초청된 자매도시 울산의 시립교향악단, 관객의 박수로 먹고 사는 연주자가 무대에 첫발을 딛고 객석을 바라볼 때가 제일 겁이 난다. 한번 쪽 훑어보고 객석이 비어있으면, 힘이 빠진다. 누구 위해 연주를 해야 할까? 그 심정이 되어보면, 지나가는 사람이라도 강제로 앉혀두고 싶다. 멀리 10시간을 날아와서 말도 안 통하는 이곳에 비어있는 객석을 바라보고 연주할 순 없지 않은가..속이 탄다. 멀리 우리를 응원하기 위해 시장님도 오시는데..공연장문은 굳게 닫혀있다. 이곳 극장뿐만 아니라 미국이라는 곳 자체가 시간에 정확하다. 정시에 열고 정시에 닫고..공연장을 미리 오픈하면 궁금해서라도 사람들이 와 볼텐데 여전히 로비는 깜깜하고, 극장측 직원들은 보이지 않는다. 이런 사실조차 모르는 단원들은 모두 무대 뒤에서 자신들의 악기를 점검하고, 연습하고 연습한다. 공연시작 1시간30분전, 공연장 외곽을 찍기 위해 밖으로 나온 나에게 이상한 장면들이 보이기 시작했다.

- 2부는 다음호에

글 | 권혁민(울산시립예술단 홍보 및 아트프렌드 기자)

Arts Friend

공연 · 전시가이드

※ 공연일정은 주최 측의 사정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습니다.

PERFORMANCE

제15회 국악관현악과 함께하는 창작동요 발표회

일 시 | 7. 1(일) 16:00
장 소 | 소공연장
입장료 | 무료
주 최 | 울산동요사랑회

■ 공연개요

울산을 비롯한 전국 유명 아동문학가들의 좋은 글을 바탕으로 울산과 전국의 유명 작곡가가 새로이 곡을 붙여 만든 창작동요 30여곡을 발표

■ 프로그램

- 정말 그럴까
- 솔방울, 반구대 암각화, 아기거북 반구 등 8곡
- 봉수대 가는 길, 풍어가, 가마솥에 누룽지 등 21곡

2012 울산 전국여성합창대회

일 시 | 7. 6(금) 13:30
장 소 | 대공연장
입장료 | 무료
주 최 | (주)울산방송

■ 공연개요

"여성합창"을 주제로 전국 25개 여성합창단 공연 추진 울산의 문화예술분야 발전에 기여

내드름 연희단 정기공연 "다드락"

일 시 | 7. 8(일) 19:00
장 소 | 대공연장
입장료 | 전석 10,000원
주 최 | 내드름 연희단

■ 공연개요

전통예술의 근간인 무악과 무가를 현대적 느낌으로 재구성하여 무속악이 가진 예술적 가치를 관객에게 선사

■ 프로그램

- 내드름 : 노를 저어라
- 청배
- 모듬북을 위한 사물시나위
- 가족을 논하다
- 끝장 판굿
- 흥풀이

정민류 정통춤 한마당

일 시 | 7. 11(수) 19:30
장 소 | 소공연장
입장료 | 일반 10,000원 학생 7,000원
주 최 | 정민춤 보존회 울산경남지회

■ 공연개요

전통춤의 명인 정민 선생을 추모하기 위한 공연

■ 프로그램

- 살풀이 춤
- 장구춤
- 청풍명월
- 태평무
- 풍류
- 2012 비나리 춤

이은결의 블록버스터 매직 "The ILLUSION"

일 시 | 7. 14(토) 15:00 19:30
7. 15(일) 14:00 18:30
장 소 | 대공연장
입장료 | R 80,000원 S 60,000원
주 최 | (주)울산방송

■ 공연개요

- 한국의 세계적 미술사 이은결의 매직쇼
- 순간이동 마술, 관객과 함께하는 마술, 카드마술 등 이은결 매직의 총결산

■ 프로그램

- 헬기마술, 순간이동 마술, 철판 통과 마술
- 7080마술, 타임머신 마술, 마술의 달걀
- 액자마술, 카드마술, 거울 등장 마술
- 상상의 그림, 상상수업, 핑거발레 등 다수

가족뮤지컬 "책 먹는 여우"

일 시 | 7. 14(토) 11:00 14:00 16:00
장 소 | 소공연장
입장료 | 전석 20,000원
주 최 | 가람뮤지컬

■ 공연개요

어린이 베스트셀러 "책 먹는 여우"를 신나는 노래와 춤이 가미된 뮤지컬로 제작하여 컴퓨터와 TV에 폭 빠진 어린이들의 문화를 책과 공연의 문화로 이끌기 위한 작품

■ 프로그램

책을 너무나 좋아해 읽고 먹어 치우는 여우. 집에 있는 책을 다 먹은 뒤 나쁜 꼬임에 빠져 도서관 책을 훔치려다 감옥에 갇힌다. 하지만 그 동안 먹은 책을 바탕으로 멋진 책을 써 큰 성공을 한다.

울산 남구 구립교향악단 정기연주회

일 시 | 7. 17(화) 19:30
장 소 | 대공연장
입장료 | 무료
주 최 | 울산 남구 구립교향악단

■ 공연개요

클래식 음악을 통해 울산시민들의 정서함양 및 지방 문화예술발전에 기여

■ 프로그램

- 오케스트라 연주
- 바리톤 협연
- 합창단 협연
- 소프라노 협연
- 오케스트라 연주

2012 서덕출 · 신고송 동요합창제

일 시 | 7. 17(화) 19:00
장 소 | 소공연장
입장료 | 무료
주 최 | 울산동요사랑회

■ 공연개요

울산 동요문화의 보존과 발전을 위해 주옥같은 신고송 시인의 시를 새롭게 동요로 만들어 울산의 여러 어린이 합창단이 함께 부름

■ 프로그램

- 꼬부랑 둔덕, 산 너머 저쪽, 여름(울산KBS 어린이 합창단)
- 봉선화, 벼개 얘기, 가을 비(남산어린이합창단)
- 여름 비, 달(동백어린이합창단)
- 태양을 보고, 씨를 뿌리자(신정어린이합창단)
- 조각빛, 진



* 공연일정은 주최 측의 사정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습니다.

두비두비 음악회

일 시 | 7. 18(수) 10:40 11:40

장 소 | 소공연장

입장료 | 전석 5,000원

주 최 | (주)코앤코뮤직

■ 공연개요

실제로 접하기 힘든 악기들의 다양한 소리를 들어보고 즐거운 동요와 동화속에서 자연스럽게 클래식을 즐길 수 있는 공연

■ 프로그램

라데츠키 행진곡, 동요 등

연극 “바쁘다 바빠”

일 시 | 7. 20(금) 19:30

7. 21(토) 15:00 18:00

7. 22(일) 15:00 18:00

장 소 | 소공연장

입장료 | 전석 30,000원

주 최 | 극단 해오름

■ 공연개요

1987년 초연된 연극으로 빈민층의 열악한 삶을 재조명하여 현 세대를 다시 되돌아보게 하며, 세대 간의 오해와 견해를 융합하고 이해하는 공연으로 가족의 소중함을 일깨워 줌

■ 프로그램

- 어머니의 분주함 속에 모두의 생활이 시작된다. 새벽청소를 하고 돌아온 아버지는 식전 땀바람부터 실새없이 잔소리를 쏟아내며 식구들의 귀를 따갑게 만든다.
- 거리 청소부 아버지, 쓰레기통 고철을 주우러 다니는 용식이, 만삭인 장녀 화순과 삼류시인인 사위 동철, 그리고 영화배우를 꿈꾸는 껌팔이 점순이. 누구나나 평범하지 않은 이 가족은 하루도 바람 잘 날이 없다.

중구 심포니 오케스트라 정기연주회

일 시 | 7. 21(토) 19:00

장 소 | 대공연장

입장료 | 무료

주 최 | 중구 심포니 오케스트라

■ 공연개요

울산 심포니 오케스트라가 중구 심포니 오케스트라로 명칭을 변경하고 갖는 첫 정기연주회

■ 프로그램

- 현악 합주를 위한 모음곡(John rutter)
- The Four Seasons(Antonio Vivaldi)
- The 4 Seasons of Buenos aires, Summer(Piazzolla)
- Serenade for Strings in C major, Op.48(Tchaik)

가족뮤지컬 “인어공주”

일 시 | 7. 25(수) 19:30

7. 26(목) 11:00 16:00 19:30

장 소 | 대공연장

입장료 | V 40,000원 R 30,000원

S 20,000원

주 최 | 극단 예일

■ 공연개요

인어들의 화려한 춤과 노래의 향연, 아이들의 꿈이 가득한 아름답고 신비로운 바다속 인어공주 이야기

■ 프로그램

깊은 바다 밑에는 인어들이 모여 사는 황금성이 있다. 그곳을 지배하는 트리톤 대왕의 막내공주 아리엘은 아빠가 정해놓은 바다 속 규율을 어기고 물위로 올라간다. 물위로 올라온 아리엘은 뜻밖에도 육지세계 왕자님을 보게 되고 사랑에 빠지게 된다. 하지만 다리가 없는 아리엘은 왕자님을 만나기 위해 바다마녀를 찾아가서 자신의 아름다운 목소리를 바치고 다리를 얻어서 육지로 나오는 데...

2012 The Classic - 여름밤의 꿈

일 시 | 7. 29(일) 19:00

장 소 | 소공연장

입장료 | 무료

주 최 | 국악실내악단 소리샘

■ 공연개요

소리샘 공연의 브랜드화를 위해 “The classic”이란 타이틀과 부제 “여름밤의 꿈”을 가지고 연주자들이 스릴러의 옷을 입고 연주하여 시민들의 여름밤 더위를 잠시나마 잊게 하고자 함

■ 프로그램

- 제1장 : 꽃의 동화, 섬집아기, 자장가
- 제2장 : 피리산조, 동행, 미궁, 아리랑을 위한 노래
- 제3장 : 해오름, 아름다운 인생, 위촉곡(예정)

남도민요와 경기민요의 만남

일 시 | 8. 16(목) 19:30

장 소 | 소공연장

입장료 | 전석 10,000원

주 최 | 박미경 국악연구회

■ 공연개요

남도민요와 경기민요의 만남을 통하여 지방마다 다른 다양한 소리를 시민들에게 알리고자 함

■ 프로그램

- 흥타령
- 가야금 병창, 쑥대머리, 함양 양잠가
- 잣은방아타령, 방아타령, 경북곡 타령(경기)
- 한오백년, 강원도아리랑, 밀양아리랑
- 방아타령, 풍년노래(남도)
- 노랫가락, 창부타령, 동해바다

2012-망개 정기공연 “난리굿”

일 시 | 8. 17(금) 19:30

장 소 | 소공연장

입장료 | 전석 10,000원

주 최 | 퓨전국악실내악단 망개

■ 공연개요

- 제12회 난리굿 공연
- 전통을 기반으로 현대음악과 어울리는 가무악 한마당

■ 프로그램

- 퓨전국악실내악
- 실내악과 소리의 만남
- 드라마 OST 모음
- 난장
- 실내악과 사물의 만남

뮤지컬 “로미오와 줄리엣”

일 시 | 8. 18(토) 14:00 16:30

8. 19(일) 14:00 16:30

장 소 | 대공연장

입장료 | 전석 20,000원

주 최 | N.A 뮤지컬컴퍼니

Arts Friend

공연·전시가이드

※ 공연일정은 주최 측의 사정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습니다.

■ 공연개요

- 셰익스피어의 명작 "로미오와 줄리엣" 을 뮤지컬로 제작
- 중세풍 음악과 의상, 아크로바틱한 안무, 셰익스피어 시대 런던의 글로브극장을 옮긴 듯한 무대구성과 빠른 극 전개로 관객의 눈을 사로잡으며, 막전환의 지루한 암전속에서 비보이의 다이내믹한 공연이 추가

■ 프로그램

사치와 권력으로 물든 혼탁한 중세의 도시 베로나, 이 곳에 오랜 앙숙인 몬태규 가문과 캐플릿 가문이 있었다. 이들의 이야기는 캐플릿이 주최하는 가면무도회 날 시작되었다. 가면무도회는 그 시대의 젊은이들에게 자유로운 만남을 귀족들에게는 부의 과시를 상징하는 유일한 사교의 공간이자 축제였다. 로미오 역시 캐플릿이 주최하는 무도회에서 망설였지만, 친구들의 성화에 못이겨 참석하게 된다. 그리고 그곳에서 로미오와 줄리엣은 운명처럼 만나게 되는데...

아르스노바 영 아티스트 콘서트

일 시 | 8. 18(토) 19:00

장 소 | 소공연장

입장료 | 무료

주 최 | 아르스노바 음악연구회

■ 공연개요

현재 해외에서 유학중인 울산출신의 젊은 연주자(피아노, 바이올린)들의 연주로 베토벤의 피아노 소나타를 비롯해 쇼팽, 생상, 드뷔시, 슈만의 곡을 들려줌

■ 프로그램

- 베토벤 피아노 소나타 4번
- 쇼팽 발라드 1번
- 드뷔시 Pourle Piano1
- 슈만 바이올린 소나타 1번
- 베토벤 피아노 소나타 7번, 슈만 빈 사육제

제2회 유니 플루첼 정기연주회

일 시 | 8. 22(수) 19:30

장 소 | 소공연장

입장료 | 무료

주 최 | 유니 플루첼 앙상블

■ 공연개요

플루트 앙상블 연주를 연주를 통한 시민들의 문화예술 향유 기회 확대와 음악을 통한 정서 함양에 이바지

■ 프로그램

- Divertimento 1악장, 3악장
- Concerto No.1 in a minor - op.33
- Concerto in e minor
- Le Carnaval des Animaux(동물의 사육제) 등 다수

SOUL 챔버오케스트라 협주곡의 밤

일 시 | 8. 23(목) 19:30

장 소 | 소공연장

입장료 | 무료

주 최 | SOUL 챔버오케스트라 협주곡의 밤

■ 공연개요

울산시향 단원들이 주축이 되어 결성된 SOUL 챔버오케스트라의 연주회로 오케스트라 서곡으로 시작하여 각종 악기 협연곡들을 연주

■ 프로그램

- 모차르트 서곡(피가로의 결혼)
- 피아노 모차르트 협주곡
- 랄로 바이올린 협주곡
- 하이든 첼로 협주곡
- 성악 그리운 금강산
- 성악 남몰래 흐르는 눈물 외 3곡

가족뮤지컬 "아기돼지 삼형제"

일 시 | 8. 25(토) 11:00 14:00 16:00

8. 26(일) 12:00 14:00

장 소 | 소공연장

입장료 | 전석 20,000원

주 최 | 동그라미 그리기

■ 공연개요

어린이들에게 친숙한 세계명작동화 "아기돼지 삼형제"를 노래와 안무, 배우 연기를 통한 뮤지컬로 제작하여 아이들에게 성실함과 유비무환의 교훈을 주는 공연

■ 프로그램

귀여운 아기 돼지 삼형제가 함께 살고 있다. 엄마 돼지는 아기 돼지들이 커가자 자립심을 키워주기 위해 자신의 집을 짓고 살 것을 명한다. 집을 나온 아기 돼지 삼형제는 자신만의 집을 짓고 살기 위해 각자 열심히 머리를 써서 설계를 하고 재료

를 구해 집을 짓는다. 첫째 돼지는 지푸라기를, 둘째는 돼지는 나무를, 막내 돼지는 벽돌집을 짓고 산다. 그러던 어느 날 배고픈 늑대가 지나가다 아기 돼지들을 보게 되고 아기 돼지를 잡아먹으려는 늑대와 아기 돼지 간의 공방전이 시작되는데...

어린이 뮤지컬 "마법의 성"

일 시 | 8. 29(수) 11:00 14:00 16:00

장 소 | 대공연장

입장료 | 전석 10,000원

주 최 | (주)울산시민일보

■ 공연개요

꼬마마녀와 함께하는 어린이 성교육 뮤지컬

■ 프로그램

말괄량이 꼬마요정 미미와 예쁘지만 욕심쟁이인 나나는 요정의 법에 따라 10살이 되면 매년 단 한 명만이 될 수 있는 사랑의 요정이 되기 위한 미션을 받는다. 그 미션은 귀여운 우리 어린이들에게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 알려주는 것! 먼저 미션을 성공하는 꼬마 마녀만이 사랑의 요정이 될 수 있는데...

ubc개국 15주년 기념 푸른음악회

일 시 | 8. 31(금) 19:30

장 소 | 대공연장

입장료 | 무료

주 최 | (주)울산방송

■ 공연개요

2012년 (주)울산방송 개국 15주년 기념행사의 일환으로 뮤지컬 맘마미아 출연진의 칼라콘서트, 뉴프라이 오케스트라와 성각가 김동규 등이 출연하여 시민들과 함께하는 공연으로 진행

■ 프로그램

- 축전 서곡
- 축배의 노래
- 로미오와 줄리엣 중 "Je veux vivre"
- 세빌리아 이발사 중 "Largo al factotum"
- 10월의 어느 멋진 날에
- I have a dream
- Dancing Queen 외 다수



※ 전시일정은 주최 측의 사정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습니다.

EXHIBITION

울산·대전 한국화 공감전

기간 | 7. 5(목)~7. 10(화), 6일간
장소 | 제1전시장
주최 | 울산현대한국화회

■ 전시내용

울산 현대한국화회 작가와 대전 한국화회 작가와의 교류전으로, 전통기법과 현대적 기법의 조화에 대한 지역 간의 공감대를 이루고 한국화의 다양성을 울산 시민에게도 알리기 위한 한국화 작품 45점 전시

제2회 한국서각학회전

기간 | 7. 4(수)~7. 7(토), 4일간
장소 | 제2전시장
주최 | 한국서각학회

■ 전시내용

한국서각의 대표 작가들로 구성된 한국서각학회 제2회 정기전으로 명인과 경구 등을 전통과 현대 기법의 새로운 조형으로 구성하여 한국서각의 근원지인 울산에서 선보이고자 서각 작품 30점 전시

제4회 경상일보 사진동우회 회원전

기간 | 7. 4(수)~7. 8(일), 5일간
장소 | 제4전시장
주최 | 경상일보 사진동우회

■ 전시내용

경상일보사진동우회 제4회 정기회원전으로, 울산 공단 지정 50주년을 맞아 울산의 어제, 오늘 그리고 미래를 사진을 통하여 시민들에게 보여줌으로써 울산시민의 자긍심을 고취하고 울산을 대내외에 홍보하고자 마련된 전시로 자유 규격의 사진 작품 60점 전시

제12회 울산함월수석회 회원전

기간 | 7. 6(금)~7. 7(토), 2일간
장소 | 제3전시장
주최 | 울산함월수석회

■ 전시내용

울산함월수석회의 제12회 정기 회원전으로, 회원 15명이 채석한 바닷돌, 강돌, 야생화석 등 40점 전시

제16회 울산광역시 서예대전 심사·후회

기간 | 7. 8(일)~7. 9(월), 2일간
장소 | 제2, 3전시장
주최 | 울산서예협회

■ 전시내용

울산서예협회가 제16회 울산광역시서예대전의 작품을 공모하여 작품심사 및 회회대회 개최

제8회 울산미협 문인화 분과전

기간 | 7. 9(월)~7. 13(금), 5일간
장소 | 제4전시장
주최 | 울산미협 문인화분과

■ 전시내용

울산미협 문인화분과 제8회 정기회원전으로, 회원 27명이 합작으로 태화강 십리대밭을 주제로 표현하였으며, 문인화의 다양성을 울산시민에게 선보이고자 마련한 문인화 작품 60점 전시

제5회 먹물 향기전

기간 | 7. 10(화)~7. 15(일), 6일간
장소 | 제2,3전시장
주최 | 울산미협 서예분과

■ 전시내용

선현들의 주옥같은 문구를 한문, 한글, 서각 등 다양한 장르와 다양한 서체에 담아 묵향의 진수를 느낄 수 있는 서예 작품 60점 전시

울산 관광기념품 공모전

기간 | 7. 12(목)~7. 17(화), 6일간
장소 | 제1전시장
주최 | 울산광역시 관광과

■ 전시내용

울산의 문화와 역사적 특성을 살린 우수한 관광기념품을 발굴 육성하기 위한 관광기념품공모전

제3회 예가인 정기전

기간 | 7. 14(토)~7. 19(목), 5일간
장소 | 제4전시장
주최 | 예가인

■ 전시내용

예가인의 세 번째 정기전으로, 자연과 삶이라는 폭 넓은 주제를 가지고 다섯 작가들의 제각기 다른 관점과 시선으로 표현한 수채화, 유화 등 회화 작품 30점 전시

제10회 울산 수채화협회 정기전

기간 | 7. 19(목)~7. 24(화), 6일간
장소 | 제1전시장
주최 | 울산수채화협회

■ 전시내용

울산 수채화협회의 10주년 기념 정기회원전으로, 수채화 인구의 저변 확대를 회원과 비회원들이(아마추어 포함) 다양한 기법과 새롭고 실험적인 방법을 가미하여 작가 개인의 개성을 표현한 수채화 작품 50점 전시

제16회 경상일보 보도 사진전

기간 | 7. 20(금)~7. 25(수), 6일간
장소 | 제4전시장
주최 | 경상일보사

■ 전시내용

창간 23주년을 맞이한 경상일보사의 제16회 보도사진전으로, 울산공업센터 지정 50주년 및 지난 1년 동안 울산지역의 각종 사건사고 현장의 찰나, 한국보도사진전 주요 수상작 등 경상일보 지면을 통해 독자와 시민들의 눈을 사로잡은 80점의 사진 작품 전시

제11회 한마음 야외 조각전

기간 | 7. 21(토)~9. 17(월), 59일간
장소 | 야외전시장
주최 | 울산남구문화원

■ 전시내용

울산 미술의 저변 확대를 위해 개최하는 제11회 한마음 미술·사진작품 공모전의 야외 조각분야 입상 작품 10점 전시

Arts Friend

공연·전시가이드

※ 전시일정은 주최 측의 사정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습니다.

이상옥 서양화 개인전

기간 | 7. 21(토)~7. 26(목), 6일간
장소 | 제2전시장
주최 | 이상옥

■ 전시내용
내면적인 의미를 외부로 표출한 서양화 비구상 작품 60점 전시

제3회 철때반죽 정기전

기간 | 7. 21(토)~7. 26(목), 6일간
장소 | 제3전시장
주최 | 철때반죽

■ 전시내용
철때반죽 회원들의 사진발전을 위한 단체전으로 울산 시민들의 다양한 삶의 모습을 담은 사진 작품 40점 전시

제13회 울산구상작가회 회원전

기간 | 7. 26(목)~7. 31(화), 6일간
장소 | 제1전시장
주최 | 울산구상작가회

■ 전시내용
울산에서 활동 중인 구상계열 작가들의 모임인 울산구상작가회의 제13회 정기전으로, 풍경 및 정물 등의 미술 작품 21점 전시

한국디지털 사진가협회 울산지부전

기간 | 7. 26(목)~7. 31(화), 6일간
장소 | 제4전시장
주최 | 한국디지털사진가협회 울산지부

■ 전시내용
울산디지털사진가협회 제2회 정기회원전으로, 울산을 소재로 작가들의 미감을 통해 담은 진취적인 사진 작품 60점 전시

제4회 김인숙 개인전

기간 | 7. 27(금)~7. 31(화), 5일간
장소 | 제2전시장
주최 | 김인숙

■ 전시내용
반구대 암각화와 천전리 각석 등 울산지역 및 전 세계의 암각화를 주제로 구상과 비구상의 서양화 작품 30점 전시

제3회 빛그림 포토클럽 회원전

기간 | 7. 27(금)~7. 31(화), 5일간
장소 | 제3전시장
주최 | 빛그림 포토클럽

■ 전시내용
빛그림포토클럽의 세 번째 정기회원전으로, 누군가에게 한 때 행복했던 시간, 힘들었던 시간, 기억하고 싶었던 추억 등 시간의 흐름에 따라 작가 개인의 감성을 담은 사진 작품 80점 전시

제1회 읍용 오형수 서예전

기간 | 8. 2(목)~8. 7(화), 6일간
장소 | 제1전시장
주최 | 오형수

■ 전시내용
논어, 명심보감 등 명언 글귀와 경구 등 한문과 한글로 표현한 다양한 서예 작품 50점 전시

그룹1998 울산대 동문전

기간 | 8. 9(목)~8. 14(화), 6일간
장소 | 제1전시장
주최 | 그룹1998

■ 전시내용
울산대학교 서양화와 동문회의 다섯 번째 정기전으로, 창조적이고 실험적인 현대미술 작품 52점 전시

제6회 한국서각협회 울산지회전

기간 | 8. 9(목)~8. 14(화), 6일간
장소 | 제2,3전시장
주최 | 한국서각협회 울산지회

■ 전시내용
회원 공동 작업으로 완성한 반구대암각화 등 전통과 현대를 아우르는 서각 작품 90점 전시

제10회 창 회원전

기간 | 8. 9(목)~8. 14(화), 6일간
장소 | 제4전시장
주최 | 창

■ 전시내용
창신대학 미술과 동문들의 정기전으로, 색깔과 형태, 소재 등을 다양하게 사용하여 개성을 표현한 구상, 비구상 작품 40점 전시

제17회 아시아 미술 교류전

기간 | 8. 16(목)~8. 21(화), 6일간
장소 | 제1,2,3,4전시장
주최 | 울산미술협회

■ 전시내용
울산미술협회 회원과 중국 장춘시 서화협회 회원들의 교류전으로, 한국화, 서양화, 판화, 공예, 조각, 서각, 서예, 문인화, 설치미술 등 450여 작가들의 다양한 작품을 상호교류 전시

제16회 울산광역시 서예대전

기간 | 8. 23(목)~8. 28(화), 6일간
장소 | 제1,2,3,4전시장
주최 | 울산서예협회

■ 전시내용
지역 신진작가 발굴 및 울산 서예의 저변 확대를 위해 매년 개최하는 울산광역시서예대전의 입상 작품 및 초대작가, 운영위원의 서예 작품 300점 전시

울산 국제사진 페스티벌

기간 | 8. 30(목)~9. 6(목), 8일간
장소 | 제1,2,3,4전시장
주최 | 울산매일신문사

■ 전시내용
사진, 사람, 생활, 환경, 어울림을 테마로 한 50명의 국내작가와 10명의 외국작가의 사진 작품 250점 전시



회원의 종류

구 분	가입기준	연 회비	수혜인원
일반회원	만 19세 이상	20,000원	2인
청소년회원	만 7세 이상 ~ 만 18세 이하	10,000원	1인
가족회원	한 가족	40,000원	4인
단체회원	기업체 또는 단체(10인 이상)	100,000원 (1인 추가시 10,000원)	가입인원

※ 청소년회원은 회원 가입 시 주민등록상 나이 확인

회원기간 | 가입일로부터 1년간

가입방법

- 인터넷 : 회관 홈페이지(<http://www.ucac.co.kr>)
- 전 화 : 052)226-8274
- 방 문 : 울산시립예술단 사무국, 대공연장 매표소
- ※ 전화·방문 가입은 평일 9시부터 18시 사이에 가능하며, 홈페이지에도 가입을 하셔야회원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회비납부 | 회원가입하실 때 납부

- 인터넷 가입 시 신용카드 및 가상계좌로 납부 가능
- 은행납부 : 경남은행 540-07-0183857 / 회원가입비(문화예술회관)
- ※ 은행납부는 지정계좌 입금 후 전화로 확인

회원혜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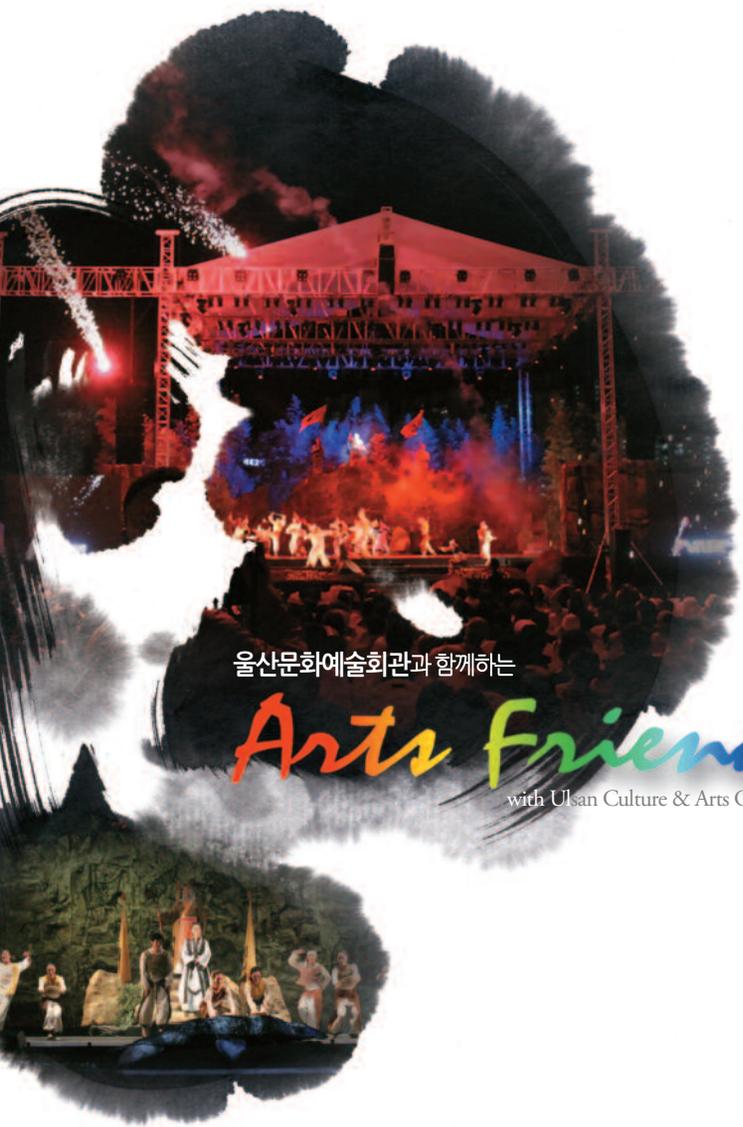
- 월간 문화예술정보지 "울산문화예술회관과 함께하는 *Arts Friend*" 무료 우송
- 회관 기획공연 및 시립예술단 공연 시 30% 할인 (일반회원 2매, 청소년회원 1매, 가족회원 4매, 단체회원은 본인에 한함)
- 울산문화예술회관 주최 아트 클래스 등록 시 30% 할인
- 울산문화예술회관 주최 초대공연 시 초대권 우송
- 회원을 위한 음악회 개최
- 대관공연 시 주최 측과 협의하여 5%~30% 할인혜택 부여(일부 대관공연 제외)
- 마일리지 포인트 적립(회원가입비 10%, 회관주최 공연 입장료 5%)
- * 마일리지 포인트로 회관 주최 유료공연 입장권 구매 가능
- 이메일 및 SNS로 공연정보 제공

※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울산시립예술단 사무국(☎052-226-8274)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빠른티켓 오픈 정보와 공연, 전시 소식을 실시간으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 울산문화예술회관 트위터(@ulsanart)와 페이스북(ID:Ulsanartcenter)에 친구 신청을하시면 공연관람권이 쏟아집니다!!
- 울산문화예술회관 홈페이지(www.ucac.or.kr)를 방문하시면 쉽게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울산문화예술회관과 함께하는

Arts Friend

with Ulsan Culture & Arts Center